

투데이 칼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중해 주고 인정과 관심 가져 주기를 좋아한다.

심리학자 타고 이야기라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첫걸음이 바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이름이 반복해서 불리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버린다. 상대방과 한층 친밀한 관계가 된 것처럼 느낀다. 이름은 사람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과거 소니(sony) 창시자인 이부카 아사부는 이름 부르기 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기업을 경영해 성공 하였다.

누군가 친절한 말을 사용하면 호감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고 생각 한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도 이름다운, 고마운, 멋진, 사랑과 같은 단어들 이 긍정적인 느낌을 주듯이 이름을 불러주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 문장을 시작하고 끝낼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을 실력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너무 자주 이름을 부르면, 즉 2~3분에

한번 이상 부르면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는 인상을 주어 부정적으로 비춰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이름을 불러주며 인사하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효과가 매우 컸다고 한다.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는 그의 저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이름의 마술적인 힘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그는 이름은 개개인을 차별화시켜 주며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너럴 모터사의 한 직원이 주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한다. 하루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자 계산대에 근무하는 여자가 햄을 저울에 달아서 상추 한 잎과 포테이토칩을 몇 개 담아주었다고 한다.

이름 부르기 화법



김양욱 한국스피치·리더쉽·면접 아카데미원장

실 중에 "우리들(we)"이라는 주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를 잘 파악하여 군인들에게 연대의식을 고무하고 전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고른 단어라고 한다.

스티브 카터(Steve Carter)는 "사람을 움직이는 9가지 사소한 습관"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매일의 단어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라는 단어는 두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다리이다. 한 번에 하나씩의 "우리"가 쌓여서 파트너쉽과 유대감이 생겨난다. 매일 매일의 대화에 "우리"라는 단어를 주입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하였다. 부부갈등을 연구한 심리학자 가트맨(Gottman)도 강한 유대감을 지닌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우리"로 관점과 언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름 부르기와 "우리"라는 단어 사용을 사소한 일로 과소평가하지 말자. 사소한 한마디의 말이 쌓여 친밀감과 유대감을 불러온다. 우리는 따뜻한 한 마디의 말에 감동하고 정을 주고 받는다. 요즘은 갈등이 심한 사회구조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인정하는 사회, 화합하는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

사설

청년 실업 근본적인 대책을

청년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요즘 청년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는 있기는 하다. 그래도 여론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도내 비경제활동 인구가 2만 명이나 되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얼핏 생각해 비경제 활동 인구가 2만명인 것을 두고 그만하면 고민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할 이도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실업자는 장차 취업할 희망이라도 있지만 비경제활동자는 앞으로도 계속 무직자로 남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보고이다. 그래도 그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 의문이다. 공무원 채용은 극히 일부만 구제시킬 뿐이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보니 장난이 아니다. 그 경쟁률이 무려 20대 1이다. 스텝다섯 명 중에 한 명만 뽑는 것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그 누구도 아니

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터이다. 도내에 공무원 채용 시험 말고 다른 관청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겠다. 도내에 관청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 전북도를 비롯해 공기업들은 협조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민간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관청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인본 홍보용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척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일자리로는 실력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관청은 일자리 만들기는 누구에게나 공공되는 거야라 한다. 도내에는 취업을 결박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청은 일자리 만들기는 한두 번 시도해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청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서 실적 운운하지 않기를 바란다. 비경제활동자로 분류된 이들은 높고 싶어서 높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체념했을 뿐이다. 전북도와 공기업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부채 해결 대책 세워야

전북도는 지금 할 일이 많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발전 도모가 있어야겠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함들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부채 때문이다. 정부 인사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았던 때는 그 이유가 있다. 바로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부채문제는 외국에서 바라볼 때 더욱 심각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이하로 내려 잡아야 맞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낮게 잡은 것을 실제로는 더 낮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변수라는 게 좋은 쪽으로 움직여주지 않고 격정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전북도는 부채 문제를 눈감고 있을 게 아니다. 무슨 해결 대책을 세워야겠다. 우리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분명하다. 솔직하게 말해서 부채 문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지역 살림의 현주소가 빚더미 위에 있는 거라던 국민 전환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내부에 은둔하고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기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은 부채이다. 이 지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로부터 전라북도농도(農道)로 이름이 높았는데 여태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가 수익이 가장 낮은 데다 농사를 지으면 뭐하느냐는 농민들의 호소이다. 그래서 도내에는 부농보다 빈농이 많다. 농가 부채가 갈 수록 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 황당한 쪽은 도내 지자체와 공기업들이다. 그 부채 액수가 지금도 천문학적일 테니 말이다. 천문학적인 부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감한 문제이다. 복지수수가 확대되고 중에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실력력이 약하다. 지금의 부채 문제를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려하게 미래 발전 청사진을 그려나 해도 내부적으로 무거운 등짐을 진 채 허덕이고 있다면 실제 구현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부채가 여전히 지역의 발전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 전북도는 어떻게 해서든 부채 문제 해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자제언

진화하는 학교폭력 적극 신고해야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과 교육 당국, 관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내 폭력 및 왕따 문제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사이버상의 왕따 문제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른바 사이버 불링이다. 사이버불링이란 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휴대전화와 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자 정보통신 혁명의 총아인 '카톡'이 10대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카톡'이 육설과 집단 따돌림을 동반한 학교폭력의 새로운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이다. '카톡'을 통한 사이버 폭력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단체로 육설을 퍼붓고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해

왕따를 시키거나, 그룹채팅방에서 퇴장한 피해학생을 계속 초대하면서 괴롭히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117(학교, 여성폭력 신고상담) 또는 1588-9128(학교 SOS지원단), 1388(헬프콜 청소년전화)등의 다양한 신고전화번호를 두고 있으며 또한 전화신고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388또는 #0117로 문자신고도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 'safe182.go.kr', 스마트폰 앱 117chat를 통해 신고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되는 그 순간까지 경찰은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한 발 더 앞서는 방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최하준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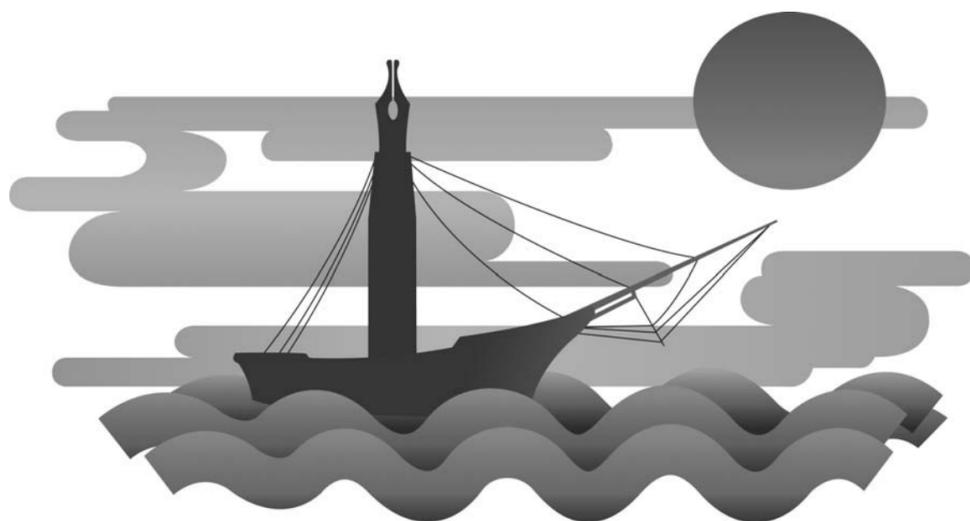
독자제언

체납과태료 납부로 변호판 영치 되는일 없도록

"내차의 변호판이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차량 변호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라진 변호판 차량 앞 유리에 '영치증'이 끼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차량 소유주가 '변호판영치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자. '변호판영치' 대상은 질서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증가산금 포함)30만원 이상의 차량이다. 차량 소유주에게 날라 온 이른바 딱지,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다면, 변호판 영치차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치된 변호판의 반환방법은 차량 소유주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한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면(평일9시~18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만약 체납액 납부하지 않고 변호판

없이 운행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 8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다시 부과되며 영치증 임의 훼손 시에는 형법 14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필자의 외근활동 차적조회 중에도 대포차 등을 포함한 변호판 영치차량이 발견되곤 한다. 적발 차량 중에는 소유주가 체납액 미지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변호판을 떼어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날 자동차 변호판이 없어져버리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액 없이 주어진 시기를 체크해 두고 지불 하도록 해야 한다. 체납과태료 징수는 법질서 확립의 기초로서, 체납을 당연시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미처 내지 못한 과태료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변호판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강정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